대구주보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2013.5.5.(다해) 제1834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루르드 성모동굴

† 오늘의 전례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3-29 참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 평화는 싸움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주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이 평화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세상인심은 오락가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1독서 사도 15,1-2.22-29 **제2독서** 묵시 21,10-14.22-23 **복 음** 요한 14,23-29

입 당 송 환호 소리 올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화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나는 내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종민 마태오 신부 | 5대리구 복음화담당

군종신부로 활동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한 전방 소초 위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 상급부대장의 소초방문이 있으니 오늘은 위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거리를 하나 덜었구나.’ 생각하면서 다음에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또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소초에서 한 병사가 자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찾아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군종신부 얼굴을 봐서라도 그 마음을 돌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살한 연예인의 소식, 자살한 군인의 소식, 자살한 학생의 소식, 자살한 누군가의 소식….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겁이 나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까요? 그들은 죽기를 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라고 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생명을 좋아합니다.

5월 첫 주일, 오늘은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자유로운 창조행위를 통해서 무상의 선물로 생성되었다고 가톨릭교회는 믿습니다. 인간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신성한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면 생명 자체가 그지없이 신성하고 고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시라도 자살을 선택할 이웃들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워주고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어려울 때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그 실패를 통해 삶의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만한 사람이고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나’임을 알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불러주는 이 동요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장난치다 어지럽혀 어른들께 야단도 맞지만, 나는 내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나를 아껴줘요, 나를 사랑해요. 나는 내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④

삼위일체의 도리는 지극히 현묘해서 사람의 머리로는 다 깨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부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리한 교리가 신경과 가톨릭교회교리서에 실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실체는 하나이고 천주성도 하나인데 이것이 셋으로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3회 생명주일 담화문(요약)

인간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합니다.

- '연명치료 중단 논의'와 관련하여 -

인간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느님 사랑의 선물이며 희망의 기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고 생명을 얻어 살기를 바라십니다(에제 33, 11 참조). 따라서 우리가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통 받는 이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살핌으로써 하느님의 선물인 인간생명을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해 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 단, 유사한 병증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안락사에 관한 선언」)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치료 수단이 환자의 상태에 의거하여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수단이라고 신중히 판단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 안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영양과 수분 공급, 통증 조절,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일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의료인과 사목자는 삶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한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고 가족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한편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이웃의 고통을 목격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40년 전부터 줄곧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삭제를 위하여 애써왔고, 3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호스피스와 가정 간호를 시작하여 병자들과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낙태반대 운동은 인간생명의 초기 단계를 보호하는 운동이고, 호스피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과 품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생명의 시작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생명 존중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태아 보호와 호스피스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인들과 정부 관계자 모두가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생명운동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2013년 5월 5일 생명주일에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 봉 훈 주교

"가톨릭 신앙은 이러하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로, 삼위를 한 분의 하느님으로 흠숭하되 각 (　　)을 혼동하지 않으며, 그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성부의 (　　)이 다르고 성자의 (　　)이 다르고 성령의 (　　)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66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경해설 ④

하느님의 외아들

문화홍보실

아버지와 같으신 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요한 14,9),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한 10,30),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요한 17,10)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 전체를 내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꼭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와 같으신 분,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들'이라 부릅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느님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위가 계신다고 하는 이 도리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진리를 하느님께서 굳이 가르쳐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일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면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요한 20,17)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이 머리로는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목숨을 벗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이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로마 5,7)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드님을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찬송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대머리 가족

15살 제이미는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매일의 주사, 그리고 독한 약으로 인한 치료 후유증은 제이미의 머리카락을 하나 둘 빠지게 만들더니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제이미는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생활하기 시작한 날부터 제이미는 잘 먹지도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으며 형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 줘도 잘 웃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울하게 지내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워하고 있던 아버지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그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도 아들처럼 머리를 밀어 버렸습니다. 대머리가 된 아버지는 모자를 쓰고 제이미를 찾아가 제이미의 머리카락이 다시 나올 때까지는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대머리가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이미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대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큰형이 모자를 쓰고 제이미 앞에 나타났습니다. 큰형도 제이미를 위해 대머리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제이미는 큰형이 해주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맞장구를 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다음 날, 제이미 앞에 나타난 작은형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빡빡머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이미! 빡빡머리는 창피한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패션이라구!" 작은형의 말에 제이미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모자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머리를 모두 깎은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엄마의 모습에 온 가족은 오랜만에 병원에 모여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때론 나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금주의 성인

성 파코미오 (5월 9일)

안토니오 성인께서 독수(獨修: 홀로 살면서 수도하는 것)생활을 시작하셨다면, 파코미오 성인께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 수도(회수會修)생활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다. 성인께서는 이집트의 이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군인으로 생활을 하던 중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사랑의 삶에 감화되어 군대를 떠나 세례를 받고 은수생활을 시작하셨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공동 수도생활을 시작하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 곳에 수도원과 수녀원을 세워 거대한 공동체의 장상이 되셨는데, 선종하실 당시 입회한 수사가 7,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성인께서는 청빈, 정결,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최초의 수도규칙을 만들어 후세의 많은 수도규칙과 수도생활에 영향을 끼치셨다.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24일(수) 오후 2시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성우 파비아노) 개관식에 참석하셨다. 이날 행사에는 3대리구장 정인용 주교대리 신부, 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 이정효 신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항곤 성주군수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제2회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미사

4월 28일(일) 이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사가 가톨릭근로자회관(관장:이상해 스테파노 신부) 주관으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들이 가톨릭근로자회관을 출발하여 주교좌 계산성당까지 성모상 행렬을 했고, 오후 3시에는 계산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 주례로 제2회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미사'가 봉헌되었다.

▪ 흥해성당 견진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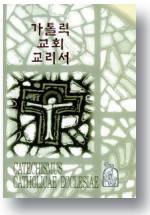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28일(일) 오전 10시 30분 흥해성당에서 157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대구주보 '신앙의 해' 교리퀴즈 안내

부활 제3, 4주일(4월14일, 21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성전, 성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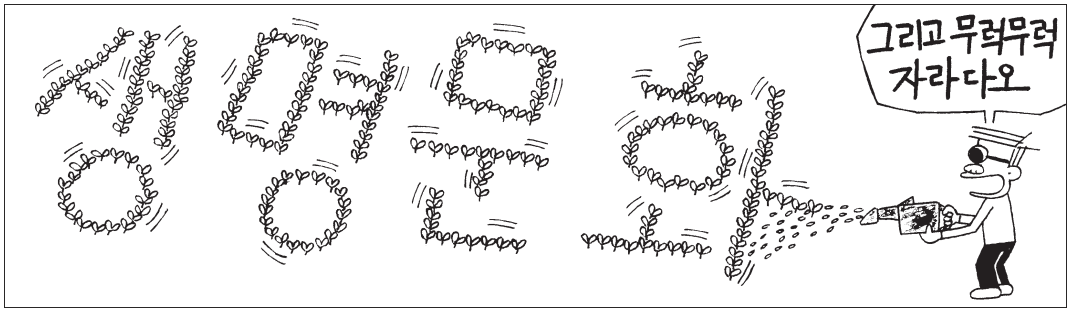
당첨자 : 김선미(모니카, 연일), 이효용(미카엘, 인동), 김태선(안나, 평리), 장정희(모니카, 상모), 배경자(수산나, 대봉), 최정순(율리안나, 계산), 황귀은(안나, 효자), 강선옥(소피아, 지곡), 이연옥(모니카, 다산), 한송이(히야친타, 내당)

※연재되는 교리퀴즈의 내용이 담긴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각 본당 사무실 또는 성물방에 마련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돌아 나거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5월 6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 집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6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5월 6일(월) 오전 11시	주교좌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6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5월 후원자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5월 6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5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 교육관 내 성당
해외선교후원회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기간: 5.11(토) 16:00~12(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만32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제4차 성경통독 피정
기간: 5.11(토) 13:30~12(일) 16:0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회비: 5만 원
(대구, 508-10-448845-1 성서사도직)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예수성심 영성체험 피정
기간: 5.17(금)~19(일)
대상: 미혼여성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5.21(화)~22(수),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제주 자연 피정
기간: 6.10(월)~13(목), 18(화)~21(금)
7.21(일)~24(수), 27(토)~30(화)
8.1(목)~4(일), 7(수)~10(토)
8.12(월)~15(목), 17(토)~20(화)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2)773-1455

천생연분 피정(춘천 교구)
오상철 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 재혼 수시접수 중
네이버 카페: 모곡피정의 집 참조
문의: 피정담당자, (033)434-4204

교육 | 모집

프란치스카눔 수강생 모집
교회생활에 도움되는 생활미술활용법
일시: 5.14(화) 10:30(20명)
발성마스터클래스
일시: 2차 5.18(토) 18:00~20:00 (20명)
문의: (070)4266-0047

베네떼 청년성가단 2기 모집
일시: 매주월 19:30, 삼덕성당
대상: 전례음악과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원
김후고 수녀, (010)7151-2004

가톨릭상지대 원격평생교육원 3차 모집
학점은행제 자격증 및 학위(온라인)과정
개강: 5.16(목),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문의: 1577-0361, www.cec.or.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3일: 5.24(금) 17:30~26(일)
4박5일: 6.17(월) 14:00~21(금)
8박9일: 5.13(월) 14:00~21(화)
이냐시오: 5.24(금) 17:30~26(일)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42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일시: 5.18(토) 14:00~15:00
장소: 남산성당
대상: 초·중·고·대학생·일반
주관: 마 신부님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건어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팡팡스크린골프존 GOLFZON
이 남 희 (세례자요한)
T.(053)571-6611~2
팡팡스크린골프존
·동시주차 60대가능(1,000평 대지) · 스크린 9룸 · 실내연습장 7석 완비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Yi Sang Doe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꼬)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www.appleuro.com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전문의 원장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간질/틱/ADHD/자폐
· 야뇨증/성장장애
· 비염/중이염
· 언어장애/보행장애
· 감기졸업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의학박사 현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 성 철(비오)
☎ (053)592-1275

서정희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행사 | 모임

봄날의 산책 콘서트
일시: 5.12(일) 19:30~21:10
장소: 서구문화회관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교육 | 모집

정평위 '함께꿈' 월례미사 및 특강
일시: 5.8(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영원한 생명이어라(도법 스님)
주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18차 어머니학교 모집
일시: 5.16(목) 9:30~14:30부터
매주 목요일(5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대회합실(신청비: 10만 원)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봉사자 (010)6784-7773 / (010)3536-6143

25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5.25~(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 특강
일시: 5.25(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자연과 함께 하는 성경읽기
강사: 황종렬(레오)교수, 회비: 5천 원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0차: 6.7(금)~ 9(일), 한티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성모신심세미나(푸른군대)
기간: 5.8~6.19(매주 수) 14:00~17:00
장소: 교구청 꾸르실료 교육관
신청비: 1인 2만 5천 원
문의: 세나뚜스 사무실, 250-3170
(010)2635-0534 / (010)8399-6681

가톨릭국악예술연합회 단원 모집
일시: 5.15(수)개강
매주 수, 목 14:00~16:00
내용: 사물놀이, 한국무용
전례무용, 민요, 난타
문의: (010)2523-2047

13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4.29(월)~5.20(월)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모집
천연비누·화장품, 퀼트, 리본공예, POP, 통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플룻, 일본어회화, 문의: 476-6211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교육생 모집
취업반, 자격증취득반, 봉사자반
대상: 남녀, 학력, 나이 제한없음(주 4회)
개강: 6.3(월) 월, 수, 금 18:00 / 토 14:00
문의: 대가대 평교원, 660-5554~7
http://www.holyfcac.or.kr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상담·행사·문화체험 도우미
의료지원
문의: (054)777-7191
(010)5025-2846

14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6.23(일) 8, 12주
2차: 8.25(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1회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4주)모집

채용 | 안내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고령) 직원 채용
생활지도원(여1명): 사회복지사자격소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해당자격증 소지
사무원(1명): 회계·홍보(SNS활용) 담당
지원서류·방법: www.wflower.or.kr

데레사소비센터 관리부 여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내사 접수)
마감: 5.31(금), 문의: 765-1500

2013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3천 원, 총 90쪽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9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656-9911
010-2008-2329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한의사 : 이정헌(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은행역 2번 출구 / 범어네거리 / 국민은행 / 대구은행 본 점 / 코리아알트만 (4F)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산양산삼8년근
풍기 천제명홍삼
농축액골드(기획) ₩86,000
홍삼액마일드 60포(1+1)
이옥이(실비아), 도석록(스테파노)
☎ 793-5325, 010-7744-5768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 술 전 문 병 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나가사키성지순례
제3차 6월05일~0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성지순례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구합니다.
● 인원:0명 ●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 당사 방문 후 면접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라식,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PLUS,안내렌즈,노안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ANGEL EXPRESS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